



환우의 쾌유를 우선으로 하는 병원
마음까지 치유하는 생명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꽃이 만발한
봄



부산가톨릭의료원
BUSAN ST. MARY'S HOSPITAL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이별 노래

이 해 인 수녀

떠나가는 제 이름을
부르지 마십시오.
이별은
그냥 이별인 게 좋습니다.

남은 정 때문에
주저앉지 않고
갈길을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움도 너무 깊으면 병이 되듯이
너무 많은 눈물은
다른 이에게 방해가 됩니다.

차고 막은 호수처럼
미련없이 앞을 버린
깨끗한 겨울나무처럼
그렇게 이별하는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환우의 쾌유를 우선으로 하는 병원
마음까지 치유하는 생명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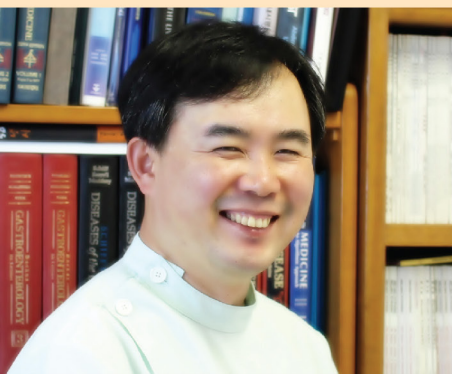
CONTENTS

권두시	02	이별 노래 이해인 수녀
	04	간암에 대해 알아보시다 박희승 과장 (소화기내과)
팀원들의 이야기	06	그대의 바람 강선영 호스피스병동 간호사
	07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기쁨 김인태(치릴로) 호스피스자원봉사자
	08	실습소감 권○○ (인제의대 본과4학년)
환자와 가족의 사랑이야기	09	당신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나요? 김정임 故 김기화님 부인
	10	사랑하는 당신, 그리고 형제들에게 故 김향순님 편지글
	11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후원회 소식
	13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활동 및 수고하신 분들
	14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NEWS

호스피스란 무엇인가?

호스피스는 죽음을 앞둔 말기환자와 그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는 행위로 환자가 남은 여생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맞이하도록 신체적·정서적·사회적·영적으로 도우며, 사별 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경감시키기 위한 총체적인 돌봄이다.

간암에 대해 알아보시다.



박희승 과장(소화기내과)

간암은 어떤 병인가요?

간암(간세포암)은 간을 이루고 있는 간세포에서 생겨난 악성 종양입니다. 간세포암은 원발성 간암이 대부분(약 80%)이므로 ‘간암’은 간세포암을 의미합니다. 간암은 매년 전세계적으로 약 60만명의 환자가 발생하는데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 동남아시아나 중국, 아프리카 등에 많고, 2011년말 국가암등록 자료에 의하면, 2009년 한 해 동안 15,936명의 간암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간암은 폐암에 이어 암으로 인한 사망이 두 번째로 많은 질환으로 40~50대 남성에게 있어서는 암 사망 원인의 1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암은 어떤 사람에게 잘 생기나요?

대한간학회/국립암센터 권고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간암이 생길 위험이 높으므로 정기적인 추적 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남자 30세, 여자 40세 이상으로 아래의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 여러 원인에 의한 간경변증(장기간 음주,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아플라톡신 섭취, 혈액소침착증, 원발성 담즙성 간경변증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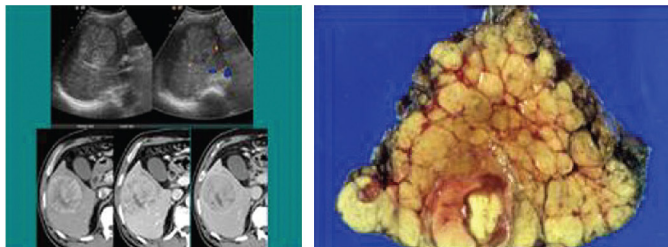
간암의 증상과 진단은 어떻게 되나요?

간암의 상당수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있더라도 기존 간질환 증상에 겹쳐져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환자에게서 우상복부나 옆구리 통증이 있고 덩어리가 만져진다고 하며, 그 외에 기존 간질환이 갑자기 악화되거나 피로감, 쇠약감,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영상검사(CT, MRI, 간동맥 혈관 조영술)상 전형적인 간종괴 소견과 알파태아단백질(AFP) 상승을 보이는 혈액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간암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검사로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조직검사를 통해 간암을 확진합니다. 따라서 간암이 생길 위험성이 높은 사람은 최소 6개월 간격으로 정기적인 간초음파(경우에 따라서는 CT)검사와 혈액검사(알파태아단백)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암의 치료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간절제와 간이식의 수술 치료, 비수술 치료로는 고주파 열치료, 간동맥 화학색전술, 에탄올 주입술, 항암약물치료 및 방사선치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간암은 간경변증 환자에서 진행된 상태에서 진단되는 경우가 많아 절제 수술을 받는 경우는 적습니다.



경피적으로 간종양을 국소적으로 괴사시키는 방법으로 고주파 열치료나 간암내 알코올 등을 직접 주입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특히 3cm 이하의 간암에서 고주파 열치료는 수술 절제와 비슷한 치료 효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치료법의 하나는 간동맥 화학색전술로 항암제와 함께 색전 물질을 주입하여 간암 혈류를 일시적으로 차단하여 종양을 괴사시키는 방법인데 수술 절제나 고주파 열치료, 에탄올 주입법 등이 어려운 경우에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진행성 간암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간기능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고, 종양의 진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방사선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간 외 전이가 있거나 다른 치료법에 반응이 없고, 진행되는 간암의 경우 표적 치료제로 소라페닙 경구투여나 혹은 전신 항암화학요법치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 효과 및 부작용, 치료비용 등에 대하여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 후 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간암은 현재까지 가장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간이식이나 간절제술에서도 5년 재발률이 각각 10%에서 50%에 이르고, 간경변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기저 간질환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도 상당하여 치료가 힘든 대표적인 암이라 하겠습니다.

간암의 예방과 조기 진단은?

간암이 생길 위험이 높은 집단에 들지 않는 것이 간암의 예방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간암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B형간염의 예방입니다. 이를 위해 B형간염 항체가 없는 사람은 B형간염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간염에 걸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칫솔, 면도기, 손톱깎이 등을 같이 사용하지 말고, 지나친 음주, 흡연을 삼가하고,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있는 식사가 중요하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에 기술한 만성 간질환 환자들은 정기적인 초음파(경우에 따라서는 CT)검사와 혈액검사(알파태아단백검사)를 받아 간암을 조기 발견해야만 완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6개월 간격의 혈청 알파태아단백검사와 복부 초음파 검사는 비교적 환자의 부담이 적으며 간편한 장점은 있으나 혈청 알파태아단백검사는 예민도가 낮아 혈청검사 단독으로 조기 간세포암의 진단에는 의의가 적습니다. 복부 초음파검사는 간내 종물을 확인하고 간세포암 조기진단에 유용한 검사법이지만 다른 양성종양과의 감별이 어려운 점과 검사자에 따른 진단 정확도에 차이가 있어서 객관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간경변증이 심한 환자에서는 초음파 투과성의 문제로 병변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CT검사가 필요합니다. 혹시 우상복부 통증이나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체중 감소, 피로감 등이 있으면 즉시 전문의를 찾아야 합니다.

그대의 바람



강선영 (호스피스병동 간호사)

행복이 무엇이나 물었던 그대의 질문
마지막 순간 답을 찾았나요.

항상 고통으로 일그러졌던 그대의 얼굴
마지막 순간 밝게 빛났지요.

항상 고맙다고 말해줬던 그대의 한마디
언제나 나를 웃게 만들었죠.

짧은 시간동안 함께했던 그대와 나
사랑의 손길이 도움 되었을까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기쁨!

김인태 (치릴로)
호스피스자원봉사자



많은 분들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은 천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 천사들이란 하느님을 시종드는 영으로서 구원을 상속받게 될 이들에게 봉사하도록 파견된 것 입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은 부족한 인간으로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기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 입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를 하면서 곁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 겸손과 온유, 인내심을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도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싫어하는 말을 할 때 이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이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미약한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서로가 위로하는 말이나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성숙하지 못한 인간의 나약함을 보게 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는데, 가진 것도 나눌 것도 없는 우리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환자들을 돕는다고 생각하는 부끄러운 일들

을 자주 합니다. 묵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환자 곁에 가지만 오만한 생각의 주머니는 늘 곁에 있나 봅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부족한 마음으로 이곳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에 출근합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형언할 수 없는 아픔으로 임종에 가까운 환자분에게 이런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힘든 것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곧 이제 편안한 고향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그곳에서 아프지 말고 행복하세요. 슬픔이 가득한 환자와 가족들 옆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 자신과 가족, 이웃, 그리고 하느님을 생각하면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활동을 통해 너무 많은 삶의 지혜를 얻습니다. 오늘 하루가 저에게 주어져 감사하며 이 하루를 위해 고통과 신음하는 환자와 가족들을 생각하고 늘 부족함을 일깨우는 이곳에서 오랫동안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어나는 것 이상으로 죽음이 중요함을 의료인으로서 항상 고민

권○○ (인제대학교 인제의대 본과4학년)

지난 1년간 병원 실습을 통하여 항상 환자는 의료인으로서 살려야하는 대상으로 보는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책임의식일 수도 있고, 어쩌면 환자를 잃는데 대한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도 이미 의식은 없지만 끝까지 많은 약과 시술이 이루어졌습니다. 환자나 가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DNR(심폐소생술 않기) 정도였지만 결국 치료의 큰 틀은 의사와 그 외 의료진의 선택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곳 완화의료센터에서는 환자중심 의료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질병의 치유보다는 환자의 걱정거리, 근심, 가장 불편한 것, 통증에 대해 우선 접근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주변사람, 가족과의 관계, 죽음에 대한 준비, 보호자에 대해서도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따뜻한 의사가 꿈이었음에도 많은 것을 잊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태어나는 것 이상으로 죽음도 중요한데 앞으로 의료인으로서 항상 고민해보고 그 고민을 통해 얻은 해답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나요?

김정임 (故 김기화님 부인)

계속되는 추위에 움츠려 들던 어느 이른 새벽 소중했던 나의 반쪽 안드레아는 이 세상의 짧은 소풍을 끝내고 하늘로 돌아갔다. 완쾌되면 둘이 캠핑카를 마련해서 카메라를 들고 맘껏 여행 다니자던 약속을 물거품으로 남겨둔 채.....

운명했다는 의사의 말에도 실감이 나지 않고, 누워있는 모습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떠났다고 했다. 마지막 모습은 정말 믿어지지 않아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며 서럽게 목소리가 끊어질듯이 울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를 할 때 안타까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고, 명치끝이 망치로 두들겨 맞는 것처럼 아팠는데 그 순간 제일 먼저 마음 편하게 잘 해 주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나서 정말 미안했다.

4년이 넘는 세월을 고생한 보람도 없이 혼자 남는 것이 억울하고 두려웠다. 안드레아는 떠나기 전 한 달 정도는 의지대로 말을 할 수 없어 마지막 인사말도 못했다. 그래서 병실에서 썼던 일기, 사회복지사님이 찍어준 사진, 아들과 나에게 마음을 담아 쓴 편지 등이 가장 소중한 유품이 되었다.

폐에서 시작된 암이 머리로 전이 되고, 의사가 떠나보낼 준비를 하라고 해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던 날 절망감에 어쩔 줄 몰랐다. 하지만 병동의 환자와 가족들,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얼굴이 낯설지 않고, 모두들 따뜻하게 맞아주어 많은 위로를 받았다.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작품을 만들어 침상 옆에 두었고, 악기연주에 맞추어 노래도 부르며 무용 등 공연을 보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들이 우리 두 사람을 밝게 만들어 주었다.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안드레아의 축일에 병동 식구 모두가 축하해 주었고, 안드레아도 애기처럼 환하게 기뻐했던 모습이 새롭기만 하였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함께 했던 많은 시간들이 슬플 때도 있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우리 부부에게 일생을 함축할 수 있는 소중한 순간들, 아름다운 추억의 시간들이었다. 안드레아가 그리울 때면 그 소중한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웃고 울면서 마음을 달랜다. 가끔은 혼자라서 낯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함께 했던 시간들을 고이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안드레아를 만났을 때 실망하지 않도록 단정하고 곱게 나이 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

안드레아! 당신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나요?

故 김기화님은 2012년 7월부터 입퇴원을 계속하였고, 2014년 1월 11일 선종하심

사랑하는 당신, 그리고 형제들에게

사랑하는 여보! 진수아버지

적지 않은 나이에 저를 위해 간호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 나이 19살에 당신을 처음 만났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원하던 공부를 못한 것이 한이 되었는데 대학까지 나온 당신을 마주 했을 때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여 피치 못할 사정으로 결혼식도 못 올리고 가정을 이루었네요. 그러나 저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이에 새로운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새로운 생명 즉 진수가 태어났고, 하늘이 우리를 축복해 주는 것 같았지요. 진수가 태어난 후 저는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심한 하늘은 우리에게 심술이 났는지 저의 건강이 악화되어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 때 당신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시골 생활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농사일도 힘들고 벌이도 시원찮아 너무 고달픈 시간이 많았습니다. 당신과 싸움도 많이 했는데 그 때 서로를 조금만 더 배려하고, 따뜻한 말이라도 나누었으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당신과 함께 했던 지난 시간들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당신과 함께 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끝으로 지금 당신에게 무척 미안합니다. 당신과 나의 분신인 진수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 못해 가장 마음이 힘듭니다. 그리고 미우나 고우나 좀 더 긴 시간을 당신과 함께 하지 못해 미안하고, 지금 당신이 힘들지만 제 곁에 있어줘서 고맙고, 우리 진수가 있어 사랑하며 살아온 세월에 감사할 뿐입니다.

평생 지금까지 살면서 면사포 한번 써 보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도와주신 부산성모병원완화의료센터에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병실의 환자들과 가족들이 있어 순간순간 고통을 잘 견딜 수 있어 더욱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언니, 오빠 그리고 동생들아!

동생으로서, 언니로서 너희들에게 무엇 하나 제대로 해 준 것이 없는데 이렇게 찾아주어 너무나 고맙구나. 시골에서 농사짓고 살면서 고추하나 쌀 한 톨 제대로 나누지 못한 것이 너무나 한이 된다. 사는 것이 힘들어 악착같이 살았는데 사람도리를 못하고 살았구나. 이렇게 아프고 나니 그런 것들이 한이 되어 더욱 가슴이 아프다. 건강할 때 좀 더 잘해 주지 못하고 다정하게 대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구나. 이런 나를 미워하지 말아다오. 그 동안 정말 고마웠다. 모두들 잘 지내길 바란다.

故 김향순님의 결혼식 때 쓴 편지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후원회 소식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의
후원회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후원금 관리의 목적

후원금 모금 사업을 통하여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의 환자와 가족들에게 좀 더 나은 완화의료치료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후원방법

후원인이 거래은행에 직접 방문하시어 아래 계좌로 자동 이체하시면 됩니다.

3. 후원계좌번호

부산은행 : 101-2016-1784-06

예 금 주 : 재)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후원금은 다음과 같이 사용 합니다.

- 환자 및 가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지원
- 저소득층 장례비 지원
-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 환자와 가족을 위한 이벤트 지원(생일, 축일, 결혼기념일, 세례식, 소원 들어 주기 등)
- 사별가족 중 위험도 사정을 기초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에게 종합건강검진을 제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돕습니다.

5. 후원 안내 및 질의

TEL. 051) 933 - 7133, 7137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6. 후원자 명단 (2014년 2월 ~ 2014년 4월까지)

강민정, 강선영, 강종원, 고영주, 공정자, 구수권, 권보식, 권현순, 김정선, 김정숙, 김미경, 김미영, 김민진, 김민진, 김병국, 김보혁, 김소원, 김수연, 김양희, 김은영, 김준현, 김혜란, 김혜정, 노미란, 류채민, 맛나분식, 문순희, 문정아, 문하영, 박기혁, 박미희, 박병진, 박성봉, 박연화, 박영철, 박윤희, 박현희, 반혜진, 백경돈, 석봉토스트, 성모과일, 성모아가다회, 성모의료기, 송미경, 송영미, 송해림, 성세비, 신라명과, 안금옥, 양택모, 영서죽집, 오수경, 유영순, 윤명숙, 유은정, 윤태업, 이금숙, 이두리, 이미영, 이성미, 이아나, 이은경, 이행우, 임지순, 임혜정, 장효제, 정미경, 정선화, 정수분, 정현주, 조수현, 조효정, 진지혜, 최금희, 최순희, 최정순, 최영미, 최원웅, 최은경, 최정순, 하미혜, 하해웅, 한수연, 황윤희

부산성모병원 완화의료후원기금 참여신청서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 부산가톨릭의료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 발급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후원하시는 모든 기부자 분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는 기부약정의 효력으로 영구 보관되며, 외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동의서명 : _____

금액 : 일금 _____ 원 (₩ _____)

☐ 일시기부 :

☐ 정기기부 : 매월 _____ 원, _____ 회(년)

※ 납부안내 : ☐ 무통장 입금

· 예금주 :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자동이체(CMS)의 경우 아래의 사항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금주 :

· 은행명 :

· 계좌번호 :

· 동의서명 :

※ 부산성모병원 완화의료후원기금은 소정의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성모병원 완화의료센터에서 펼치는 말기암환자 및 그 가족 위한
가톨릭 의료기관의 이념실천 사업을 지지하며 위와 같이 약정합니다.

20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약정인

(서명)

※ 후원회 관련 문의사항

▶ 전화 Tel 051-933-7133

▶ 팩스: 051-932-8636

※ 호스피스 후원 회원님들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소식지 “동행”을 발송해 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의 손길이 호스피스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활동 및 수고 하신 분들

♣ **환자돌봄** : 구경숙, 김금희, 김남순, 김소명, 김영희, 김옥순, 김용심, 김정순, 김주찬, 김진순, 김혜전, 김화일, 박기순, 박점숙, 박해진, 배영순, 선정임, 양정순, 유숙남, 이두이, 이영숙, 이정아, 이혜영, 장쌍란, 장영숙, 정돌분, 정미경, 조석희, 조순화, 최학문, 허정미

♣ **행정봉사** : 김인태

♣ **목욕봉사** : 김두순, 김말순, 김영자, 류선구, 류재해, 박수정, 선석호, 이정방, 임수택, 장해경, 전군자, 정성규, 정인창, 최두철, 한승수, 황상수, 황성모, 황종석

♣ **이미용봉사** : 김명옥, 정현자, 조복순

♣ **기도봉사** : 곽기미, 김경숙, 김미자, 김의숙, 신하자, 이경록, 이미강, 장준경, 정도태, 정인순, 조데레사, 조주신, 최행자

♣ **각종 프로그램봉사**

- **음악** : 강민지, 권명희, 김나연, 김남영, 김은아, 김정민, 김현옥, 김혜전, 노미애, 문소현, 박경선, 박경우, 박삼홍, 박선주, 박성우, 박정숙, 박혜정, 성경희, 손앵심, 신경이, 심유정, 양나은, 윤용철, 윤지수, 윤하정, 이정미, 이미숙, 이상균, 이상심, 이자경, 이찬혁, 장영숙, 장원석, 장혜련, 전경란, 정인숙, 정지숙, 조은산, 최민정, 한옥례, 한우인, 한현정, 허문웅, 황옥경

- **한국무용** : 박분자, 배혜경, 윤여준, 허정희

- **창** : 배미옥

- **미술** : 원보미, 이정아, 이정윤

- **풍선아트** : 김우희

- **원예** : 김현실

- **명상** : 고명효, 정명숙

- **차** : 김영선

- **리본공예** : 배상미

■ **호스피스자원봉사자 심화교육**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에게 기본적인 “대화기법”을 주제로 심화교육을 실시하였다. 환자와 가족에게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도록 훈련하는 좋은 시간이었다.

* 일시 : 2014년 3월17일, 4월 21일 10:00~12:00

* 장소 : 3층 세미나실, 4층 베네딕도홀

* 강사 : 김대성신부(부산성모여고교목)



NEWS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본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에서는 2013년 완화의료전문기관 사업 결과 보고에서 가 등급(전국 54개 중 가 등급은 5개 기관임)으로 평가받아 국가지원금을 상위로 지원 받았다. 따라서 환자, 가족, 지역사회를 위해 좀 더 질 높은 완화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일익이 되었다.

1. 의미 찾기 프로그램(소원 들어 주기)

1) 김○○ 결혼식

- * 일 시 : 2014년 1월 14일(화) 오후2시 ~
- * 장 소 : 본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 * 축하공연 : 피아노, 플룻, 오카리나 연주
- * 신랑신부와 가족을 위한 사진촬영, 하객들과 축하식(케익절단, 다과나눔)



2) 임○○ 추억의 장소 나들이

환자가 레지오 단원들과 부산 성분도수녀원을 방문하여 기도했던 시간을 그리워해서, 레지오 단원들이 동참하여 깜짝 이벤트로 함께 기도하였다.

- * 일 시 : 2014년 3월 5일(수) 11시~
- * 장 소 : 부산 광안동 성분도수녀원
- * 참석자 : 완화의료센터팀장, 간호사, 영적돌봄수녀, 간병인 등



2. 설날 이벤트

환자와 가족들에게 명절을 맞이하여 웃음과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場이다.

- * 일 시 : 2014년 1월 29일(수) 11시 ~ 14시
- * 대 상 : 호스피스병동 입원환자 및 가족
- * 내 용 : 고리 던지기 놀이와 선물 증정
- * 특식제공 : 떡국, 단술, 과일 등



NEWS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3. 호스피스 인식 확산을 위한 특강

본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에서는 장재봉신부님의 “참 생명의 다리를 놓는 사람, 호스피스!”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였다. 본원 직원 및 자원봉사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 * 일 시 : 2014년 2월24일(월) 17:00~18:00
- * 장 소 : 본원 베네딕도 홀
- * 주 제 : 참 생명의 다리를 놓는 사람, 호스피스!
- * 강 사 : 장재봉스테파노신부(활천성당주임)
- * 참 석 : 직원 및 내외부 250여명



4. 2014년 1차, 2차 사별가족 모임

영적 돌봄 수녀님의 말씀과詩낭송을 들으면서 다과와 선물을 나누었고, 서로 간에 위안과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또 사별가족위험도 사정을 기초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에게 종합건강검진을 제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도왔다.

- * 일 시 : 2014년 짝수 달 넷째 화요일 오후2시 ~
- * 장 소 : 본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프로그램실
- * 참 석 : 2월, 4월 20가족 24명 참석



5. 부활축하행사 : 부활계란 선물 & 환자 및 가족 특식 제공

예수부활의 참의미를 축하하기 위해 환자와 가족들이 부활장식을 함께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또 사랑이 가득한 주님 만찬을 생각하면서 행복한 나눔의 식사시간을 가졌다.

- * 일 시 : 2014년 4월 17일(목) 12시~
- * 장 소 : 본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 * 참 석 : 완화의료센터 입원환자, 가족 50여명



완화의료센터 진료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	연제욱	김선경	연제욱	김선경	연제욱	김선경(2,4주) 연제욱(1,3,5주)
오후	연제욱	김선경	연제욱	김선경	연제욱	

■ 김선경과장 외래진료 051) 933-7253 ■ 연제욱과장 외래진료 051) 933-7971
* 단 가정의학과 외래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진료함

- 문의 및 예약안내
- 병 원 대 표 전 화 TEL: 933-7114
 - 완화의료센터상담 TEL: 933-7133
FAX: 932-8636
 - 완화의료센터병동 TEL: 933-7100
 - 추 모 원 TEL: 933-7480, 7129

오시는 길



- 서면방면 20, 24번
- 동래방면 131번
- 마을버스 남구 2, 2-1, 8번
- 부산역방면 22, 27번
- 해운대방면 39번

부산성모병원 정류소 하차 (셔틀버스 운행)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232번길 25-14
TEL: 051) 933-7114 FAX: 051) 932-8600